

陽水陰수에 對한 文獻的 考察

金大福·金哲中*

I. 緒 論

浮腫은 體內에 水液이 滯留하여 肌膚로 泛濫하게 되어 眼臉, 頭面, 四肢, 腹背 및 全身에 까지 이르는 病이다¹⁻⁷⁾.

水腫은 대개 脾, 肺, 腎, 三焦의 不和로 因하여 發病되는 것인데, 水는 至陰에 屬하는 것으로 根本은 腎에 있고, 그 標는 肺에 있으며, 그 統制는 脾가 맡고 있는 것인데, 肺가 虛하면 氣가 津液을 化成하지 못하므로 水로 化하고, 脾土가 虛하면 水를 抑制하지 못하므로 水가 正路로 循行하지 않고 妄行하여 脾肺의 主管인 肌肉과 皮膚로 上溢하여 水腫을 惹起하는 것이다²⁾.

本證은 《內經》^{8,9)}에 “浮腫”, “水氣”, “水脹”, “跗腫”의 名稱으로 記述되어 있으니, “民病寒疾于下 甚則腹滿浮腫”, “諸有水氣者 微腫先見于目下也”, “水溢則爲水腫”, “浮腫者 聚水而生病也” 등은 모두 水腫을 指稱하는 것이다. 《金匱要略》에서 風水, 皮水, 正水, 石水, 黃汗 等の 五種으로 分類하고 心水, 肝水, 肺水, 脾水, 腎水로 五臟의 發病 機轉에 따라 分類를 始作한 以後로, 《諸病源候論》에서는 臟腑機能의 變化에 따라 十水候를 提出하였고, 《東垣十書》에서는 寒熱을 區分하였으며^{3,9)}, 以後 元代의 朱¹⁰⁻¹¹⁾는 陽水와 陰水를 區分하였다. 이러한 陽水와 陰水의 分類 類型은 以後 近來 中醫에 이르기까지 浮腫의 形證을 區分하는 優先的인 方法으로 利用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對한 體系의인 考察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에 著者는 浮腫의 形證 중 陽水와 陰水의 病因, 病理, 治法, 治方에 對한 文獻的 考察을 통해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이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丹溪心法附餘¹⁰⁾

【附脈理】

脈訣舉要曰 水腫之證 有陰有陽 察脈觀色 問證須詳 陰脈沈遲 其色青白 不渴而瀉 小便清澁 脈或沈數 色赤而黃 燥糞赤溺 兼渴爲陽

【附諸方】

麻黃甘草湯 濟世方 治水腫從腰以上俱腫以此湯發汗 麻黃去根 四兩 甘草 二兩

右咬咀 每服三錢 水一盞者 麻黃 再沸後 入甘草 煎七分 取汁 慎冒風 老人虛入 不可輕用

五苓散 方見濕熱 加木香茵陳 治水腫從腰以下俱腫 以此湯 利小便 仲景曰腰以下腫宜利小便 腰以上腫 宜發汗也

五皮散 和劑方 治風淫客於脾經 氣血凝滯 以治面目虛浮 四肢腫滿 心腹膨脹 上氣促急

五加皮 地骨皮 生薑皮 大腹皮 茯苓皮

右咬咀 每服二錢 水一盞 煎至八分 熱服 不拘時 忌生冷 油膩 堅硬等物 澹寮 去五加皮 地骨皮 用陳皮 桑白皮

2. 丹溪治法心要¹¹⁾

脈來沈遲 色多清白 不煩不渴 小便澁少而清 大便多泄 此陰水也 治宜溫暖之劑 脈來沈數 色多黃赤 或煩或渴 小便澁少而赤 大腑多閉 此陽水也 治宜清平之劑

3. 醫學入門¹²⁾

【水腫上下는 陰陽微니】

陽水는 多 外因하니 涉水, 冒雨커나 或兼 風寒 暑氣하야 而見陽症이오 陰水는 多 內因하니 飲水 와 及茶酒를 過多커나 或 飢飽, 勞役, 房慾하야 而見陰症이라 陽水는 先腫 上體 肩背 手膊의 手三陽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腎系內科學敎室

經하고 陰水는 先腫 下體 腰腹 脛부 附의 足三陰經 하나니 故로 男從脚 下로 腫起하고 女從頭 上으로 腫起者는 爲亦이니 陰陽微妙가 如此 하나니라.

【陽水는 熱渴 二便閉니 汗下分消 要得宜라】

經에 曰 諸附腫 疼酸은 皆屬於火라하고 又曰 結陽에 肢腫이라 하나니 是也 하나니라.

治與水證濕證으로 大同 하나니 大法은 腰以上이 腫이면 宜 汗이오 腰以下가 腫이면 宜 下요. 表證으로 喘咳면 小青龍湯, 越婢湯, 古麻甘湯, 桂枝苦酒湯이오, 裏證으로 腹腫, 脇硬이면 十棗湯, 澤瀉湯, 澤瀉牡蠣湯, 導水丸, 三花神祐丸, 瀘川丸, 布海丸이 하나니 然이나 證雖 可下나 又當 權其輕重이 하나니 若 年衰久病과 及 虛者면 黃米丸이라. 初期에는 只宜 上下로 分消其濕이니 五苓散에 用桂枝하고 合 六一散에 加橘皮, 木香, 檳榔, 生薑하야 煎服커나 或 單山樞丸을 木香, 白朮 煎湯으로 下요. 兼黃者면 茵陳五苓散으로 滲之 하나니라.

【陰水는 身涼 大便利니 補中行濕 或升提라】

經에 曰 陰蓄於內면 水氣, 脹滿이라 하나니 是也 하나니라.

治宜 補脾土하야 以復 運化之常하고 清心火하며 降肺金하야 俾肝木으로 有制면 而滲道가 又且 開通하리 하나니 此는 補中과 行濕을 兼全이 하나니 虛而有濕 熱者에 最宜이 하나니와 若 中寒者면 溫補라야 則氣煖而 小便이 自通이오, 氣陷者면 升提라야 則陽舉而 陰이 自降이라 故로 曰 行濕이니 非 五苓, 神佑之謂也 하나니라.

補中氣에는 六君子湯에 加 木香이오, 瀉者면 參苓白朮散, 升陽除濕防風湯이오, 嘔者면 赤茯苓湯이오, 中寒者면 玄武湯, 實脾散이오, 挾 食積者면 緊皮丸, 千金養脾丸이오, 挾 濕熱者면 中滿分消湯이오 濕甚者면 退黃丸이 하나니라.

虛甚하야 氣陷, 口無味者면 六君子湯에 加 升麻, 柴胡하야 以提之하며 復元丹이오 切忌 淡滲이 하나니라.

腎虛로 腰重, 脚腫하며 濕熱者면 加味八味丸, 滋腎丸이오 陽虛로 小便不利者면 古沈附湯이오 二便이 俱利者면 朮附湯, 復元丹이 하나니라.

【通治忌甘 與刺皮라】

凡 陽水면 宜 辛寒으로 散結 行氣하며 苦寒으로

瀉火 燥濕이오, 陰水면 宜 苦溫으로 燥脾커나 或 身熱로 導氣니라 極忌는 甘藥으로 助濕作滿이오 尤忌 針刺니 犯之면 流水이 死 하나니라.

4. 證治彙補¹³⁾

若 遍身腫, 皮色黃赤, 煩渴溺澀, 大便閉, 脈沈數, 此爲陽水, 若 遍身腫, 皮色青白, 不渴, 大便溏, 小便少不澀, 此屬陰水, 陽水外因涉水冒雨, 或兼風寒暑氣, 先腫上體, 肩背手面, 手之三陽經, 陰水內因冷水酒茶, 或兼勞慾房色, 先腫下體, 腰腹頸部, 足之三陰經.

5. 張氏醫通¹⁴⁾

皮水爲病 四肢腫 水氣在皮膚中 四肢蠢蠢動者 防己黃芪湯主之

水腫有陰陽之辨 陽水者 脈浮數偏身腫煩渴 小便赤澀 大便多秘 急宜疎餐飲禹功散用川散神芎丸神祐丸選用 小便不通危急旦夕者 沈香琥珀丸 陰囊腫脹二便不通者 三白散 然驟發便劇 元氣未衰者 可用上法 若病後脾虛發腫 只宜輕劑投之如六君五苓理苓之類 俱可應用 陰水者 脈沈遲 或細緊 偏身身腫 不煩渴 大便自調 或溏泄 小便難少而不赤色 實脾散加減 小便頻數者 濟生腎氣丸 小便有時黃赤 有時不赤 晚則微赤 此陰本陽標 未可據用溫補 先與五苓散清理其標 次與復元丹

6. 醫宗金鑑¹⁵⁾

再辨陽水與陰水攻瀉溫補責變用

【註】 陽水陰水之分宜詳別焉陽水屬實法宜攻泄陰水屬虛法宜溫補應證而施自無不效也.

陽水身熱脈沈數小便赤色大便難熱盛煩渴瀘川散濕盛脹滿神佑丸量兒大小斟酌用應變而施勿一編

【註】 陽水者小兒濕熱內鬱水道阻塞外攻肌表以致外腫內脹發熱口渴心煩小便短赤大便秘結法當泄水不可少緩熱盛煩渴者以大盛瀘川散攻之濕盛脹滿者舟車神祐丸攻之須量兒大小視病輕重合宜而用勿執一偏過於峻攻徒傷正氣也

大聖瀘川散 川大黃煨 牽牛就頭末 郁季仁各一兩 木香三錢 芒硝三錢 甘遂五分 以上爲細末薑湯調下量兒大小用之

舟車神佑丸 方見風濕腫

陰水便利不煩熱須服實脾腎氣丸若服溫補俱無驗攻補兼施病始痊

【註】 陰水者因脾腎虛弱也脾虛不能制水腎虛不能主水以致外乏作腫內停作脹若二便不實身不熱心不煩者宜用實脾散金櫃腎氣丸若腹溫補之藥而無效驗者則是虛中有實也欲投攻下之劑恐小兒難堪若不攻之又豈可坐以待弊須攻補兼施或一補一攻或三補一攻或九補一攻審其進退俟有可攻之機以意消息藥與元氣相當始能逐邪而不傷正也必須忌鹽醬百日方可收功

實脾散 草果仁研 大腹皮 木瓜 木香研 厚朴薑炒 乾薑 附子製 白朮土炒 茯苓

甘草炙 以上引用棗二枚水煎服

方歌 實脾散治陰水草果木瓜香厚朴薑附朮 苓炒虛字仍兼腎氣方

金櫃腎氣丸 熟地黃一兩 山藥八錢炒 山茱萸八錢 牧丹皮五錢 茯苓一兩 澤瀉五錢 肉桂五錢 淡附子五錢 車前子五錢 牛膝八錢 以上爲細末鍊蜜爲丸如梧桐子大每服錢般白滾水送下

7. 類證治載¹⁶⁾

【論治】

腫在外屬水. 脹在內屬氣. 腫分陽水陰水. …… 因濕熱滯滯. 治水腫者. 爲陽水. 因肺脾腎虛. 致水溢者. 爲陰水. …… 腫變陽水陰水. 陽水易治. 陰水難治. ……

【附方】

陰水 實脾飲 見逸卷濕症.

陽水 大橘皮湯 五苓散合六一散. 再加 陳皮 木香 檳榔 薑

8. 醫學正傳¹⁷⁾

【脈法】

丹溪曰 水腫脈多沈伏 病陽水兼陽證 脈必沈數 病陰水兼陰證 脈必沈遲 煩渴 小便赤澀 大便秘結 此爲陽水 不煩渴 大便溏 小便少而不赤澀 此爲陰水 脈沈而滑 爲風水 脈浮而遲 弦而緊 此爲腫也

9. 醫學心悟¹⁸⁾

水腫症, 有表 裏 熱 胃 腎之分. 大抵四肢腫, 腹不腫者, 表也. 四肢腫, 腹亦腫者, 裏也. 煩渴口燥, 溺赤便閉, 飲食喜涼, 此屬陽水, 熱也. 不煩渴, 大便自調, 飲食喜熱, 此屬陰水, 寒也.

10. 醫學門徑¹⁹⁾

陽水其腫在上及以陰水其腫在下上從汗散夏向便通開門潔府合之爲功陽水五皮陰陰水腎氣丸

11. 東醫寶鑑²⁰⁾

또 陽水, 陰水라는 것이 있는데 陽水는 물을 많이 건너거나 비를 많이 맞거나 혹은 風, 寒, 暑, 濕에 中傷하여 그 症으로서 먼저 上體에 腫이 생겨 肩, 背, 手, 臂가 熱하고 渴하며 二便이 닫히는 것이다. 陰水란 것은 물과 茶, 酒를 많이 마시고 주리고 배부를 때에 勞役하거나 房事하는 데 起因하는 症이니 그 症勢가 먼저 下體에서 浮腫이 생기고 腰, 腹, 脛, 跗와 몸의全體가 차고 大便이 利한다.

12. 濟衆新編²¹⁾

【脈法】

陽水沈數陰水沈遲

【水腫治法】

○陽水多外因涉水冒雨或感風寒暑濕先腫上體熱渴二便閉八正散或敗毒散加麻黃防風黃芩山梔 ○陰水多內因茶酒飢飽勞役房勞先腫下體身涼大便利胃茶湯復元丹

13. 萬病回春²²⁾

水腫의 病에는 陰이 있고 陽이 있는데 陰脈은 沈遲하고 그 색깔이 靑白하고 小便은 靑하고 滿한다. 脈이 혹은 沈數하고 색깔은 赤黃하고 大便은 燥하고 小便은 赤色이며 渴을 兼하는 것은 陽이다. 浮大한 것은 無妨하다.

14. 醫門寶監²³⁾

陽水者先腫上體陰水者先腫下體故男從脚下腫起女從頭上腫起者爲逆陽水多因外感得之陰水多因內傷得之治宜健脾利水爲主其類七條詳陳如左

○ 一曰陽水者身熱口渴而便閉澀其治有二. 有表證喘咳者宜小青龍湯(傷寒)越婢湯. 有裏證腹脹脇硬者宜澤瀉散十棗湯(傷寒)

越婢湯 (綱目) 治不從咳喘 麻黃三錢蒼朮二錢石膏甘草各一錢薑五棗二

澤瀉散 (入門) 治水腫二便澀澤瀉赤茯苓枳殼豬苓木通檳榔黑丑末各等分爲末生薑蔥白湯調夏二錢

○ 一曰陰水者身冷不渴大便利其治有四. 中氣不足者宜六君子湯(痰)加木香木通虛甚氣陷者加丞柴提之. 挾食積者宜藿苓湯千金餘脾丸. 中寒者宜實脾散朮附湯(濕). 腎虛不能行水者宜加味腎氣丸復元丹

藿苓湯 (醫監) 治傷食浮腫則寒門藿香正氣散合五

岩散

千金餘脾喚(入門) 治脾虛寒飲反胃水腫積實陳皮
麥芽三稜蓬朮茴香白僵蠶肉荳蔻砂仁茯苓良薑益智仁
胡椒木香藿香薏苡仁紅頭筧白朮丁香山藥扁豆桔梗人
蔘甘草神曲各等分蜜丸彈子大每日丸細嚼白湯下

實脾散(得效) 治陰水發腫先實脾土厚朴白朮木瓜
草果大腹子附子炮白茯苓各一錢木香乾薑炮甘草灸各
五分薑棗煎服

加味腎氣丸(丹溪) 治腎虛不能行水治浮腫以附子
炮二兩白茯苓澤瀉官桂牛膝車前子炒山藥山茱萸牡丹
皮各一兩熟地黃五錢右末蜜丸如梧子空心米飲下七十
丸或百丸

復元丹(得效) 夫心腎眞火能生脾肺眞土今眞火既
虧不能滋養眞土故土不制水水液妄行三焦不瀉樞機不
運腫脹滿溢喘急肢冷舌乾不能正便小便不通澤瀉二兩
五錢附子炮二兩木香茴香砂川椒獨活厚朴白朮略炒橘
皮吳茱萸桂心各一兩肉荳蔻煨檳榔各五錢右末糊丸如
梧子紫蘇湯下五十九日三服禁慾絕鹽半年

15. 晴崗醫鑑²⁴⁾

陽水熱渴而便閉 汗下分消要得宜 陰水身涼大便利
補中行濕或升提 陰多久病或產後 陽兼食毒與瘡癢

16. 舍岩鍼法體系的研究²⁵⁾

【水腫에 대한 證治】

陽水는 먼저 上體가 붓고 陰水는 먼저 下體가
붓는다.

陽水는 대개 外感에서 생기고 陰水는 內傷에서
생긴다.

陽水는 身熱 呼促 口渴 등 증상이 있으며 물을
건너거나 비를 무릅쓰거나 風, 寒, 暑氣를 견해서
陽證이 나타난다.

表證이 있어 惡寒 發熱 喘咳하는데 膀胱瀉鍼을
쓴다.

裏證이 있어 腹脹 脇硬하며 大小便이 不通이면
胃瀉鍼을 쓴다.

陰水는 身冷 不渴 大便軟하는데 그 원인이 陰水
와 茶酒를 過飲하거나 飢飽 勞役 房欲이 지나쳐
온다.

中氣가 不足해서 服滿 腸鳴 食慾不振 身心倦怠
하면 脾補鍼을 써서 補中健脾祛濕한다.

食積을 견해 消化가 되지 않고 積聚 痞滿한 데

는 脾瀉鍼을 쓴다.

中寒으로 寒邪가 二陰經으로 직접 들어오면 卒
然昏倒 四肢強直 口噤不省 無汗厥冷하는데 이때
陰水가 나타나면 먼저 脾土를 實하게 해서 土克水
를 시켜야 되므로 脾補鍼을 쓴다.

腎虛로 腰重感이 있고 脚腫하면 腎補鍼을 써서
생명력의 根元을 견고히 하여 邪水를 排泄시킬 수
있다.

17. 東醫學叢書 方藥原理(上)²⁶⁾

【浮腫의 形證과 그 種類】

또 陽水, 陰水라는 것이 있다. 그것들에 대해 알
아본다면 陽水라는 것은 外因에 의한 症이 많은데
예를 들면 물을 많이 뒤집어 쓰거나 혹은 風, 寒,
暑, 濕에 感觸되어 發生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症
狀은 먼저 上體인 肩, 背, 手, 臂가 붓고 熱이 나
며 渴症이 있으며 二便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그
리고 陰水라는 것은 內因에 의한 症이 많은데 예
를 들면 飲水, 茶酒, 飢飽, 勞役, 房勞의 不節制로
發生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症狀은 먼저 下體에
해당하는 腰, 腹, 脛, 跗등이 붓고 온 몸이 차며
大便是 잘 나오게 되는 것이다.

【浮腫의 脈法】

陽水에 陽症을 兼하면 脈이 반드시 沈, 數하고,
陰水에 陰症을 兼하면 脈이 반드시 沈, 遲하다.

18. 東醫臨床要覽²⁷⁾

【陽水】

特點 : 面目浮腫, 上體에서부터 全身으로 퍼진
다.

症狀 : 惡風하고 骨節疼痛, 혹은 寒熱이 있으
며, 脈은 浮하다.

論治 : 1 發汗 - 越婢加朮湯

2 利尿 - 五皮飲

3 逐水 - 八正散 控涎丹

【陰水】

特點 : 全身浮腫, 혹은 下肢에서부터 먼저 붓는
다.

症狀 : 面色이 蒼白하고, 小便이 靑白短少하며,
大便이 自調 혹은 當瀉하고, 舌苔
는 白, 脈은 遲하다.

論治 : 溫運脾腎 - 脾의 陽虛에는 實脾飲 胃苓

湯

腎의 陽虛에는 眞武湯 腎氣

丸

19. 常見病中醫臨床水冊²⁸⁾

臨床一般分爲陽水, 陰水兩大類. 凡因外感風寒濕熱所致者爲陽水. 體弱久病或陽水遷延, 反復不愈者爲陰水.

【治療方法】

一. 辨證施治

辨證當分陰陽, 陽水屬實, 治當發汗利尿. 陰水多屬虛中狹實, 治當溫陽益氣行水.

(一) 陽水 病起迅速, 水腫先腫頭面開始. 繼及四肢胸滿, 身半以上爲尅, 皮膚光亮而薄, 按之緊實, 凹陷較易恢復, 咳嗽氣粗, 或伴惡寒發熱, 小便黃赤短少, 大便乾結或緋, 苔白或膩, 脈浮數或沈實.

治法: 消風散表, 滲濕利尿.

方藥舉例: 苓桂浮萍湯合五皮飲加減. 桂枝一錢五分, 浮萍三錢, 防風一錢五分, 茯苓五錢, 澤瀉三錢, 五加皮三錢, 生薑皮一錢, 大腹皮三錢, 車前子四錢 ㄱ.

加減: 有表證, 惡寒明顯, 咳嗽氣粗, 去浮萍, 加麻黃一錢五分, 廣杏仁三錢. 煩熱者, 再加石膏一兩.

濕熱溫結, 苔黃膩, 口乾苦, 小便赤澀, 去桂枝, 生薑皮, 防風, 加蒼朮三錢, 黃柏三錢, 防己三錢, 連翹三錢.

腹大有水, 喘咳, 頸部如阻, 酌加商陸根三錢, 黑丑三錢, 葶藶子三錢.

(二) 陰水 病勢緩慢, 或水腫遷延反復不愈, 多從下枝開始, 繼及腹胸上肢頭面, 身半以下爲尅, 皮色

浮黃暗滯, 按之松軟, 凹陷深而難復, 小便量少色清, 大便多溏, 苔淡白潤滑, 質胖, 脈沈細遲.

治法: 健脾溫腎, 通陽行水.

方藥舉例: 附子理苓湯合金櫃腎氣丸加減. 附子二錢, 桂枝一錢五分, 白朮, 茯苓各四錢, 豬苓, 澤瀉各三錢.

加減: 脾虛明顯, 腹脹, 便溏, 加當歸四錢, 乾薑一錢, 山藥四錢.

腎虛明顯, 腰痠外冷, 面色蒼白, 加熟地四錢, 鹿角片三錢, 仙靈脾五錢. 與水腫已基本消失, 可去桂枝, 豬苓, 澤瀉.

20. 中醫症狀鑑別診斷學²⁹⁾

【概念】元, 朱丹溪則分成“陽水”, “陰水”兩大類, 爲後世所宗.

【鑑別】一般發病較急 腫勢偏于上部 屬熱證實證者稱作羊水 發病較緩病程長 腫勢偏于下部 屬寒證虛證者 稱作陰水. 《證治要訣》說“遍身腫 煩渴 小便赤澀 大便多閉 此屬陽水 遍身腫 不煩渴 大便自調或溏泄 小便屬少而不赤澀 此屬陰水.”

III. 總括 및 考察

朱^{10,11)}는 陰陽을 區分함에 脈色을 살펴야 하며, 陰水는 “脈來沈遲 色多清白 不煩不渴 小便澀少而清 大便多泄”라 하여 溫暖之劑로 治하며, 陽水는 “脈來沈數 色多黃赤 或煩或渴 小便澀少而赤 大腑多閉”하며 清平之劑로 治한다고 하여 水腫의 陰陽을 區分하여 그 症狀과 治法을 말하였다. 以後의 많은 醫家들^{12-15,17,20-22,25,26)}이 李¹²⁾가 말한 症狀을 따랐다.

李¹²⁾는 陽水는 外因으로 보아 涉水, 冒雨風寒暑한 것이며, 陰水는 內因으로 보아 飲水過多, 茶酒過多, 飢飽, 勞役, 房慾한 것으로, 發病上의 差異는 陽水는 先腫上體하니 手三陽經이라 하고, 陰水는 先腫下體하니 足三陽經이라 하였다. 또한 陽水는 “熱渴而便閉, 汗下分消, 要得宜”라 하여, 小青龍湯, 越婢湯, 古麻甘湯, 桂枝苦酒湯, 十棗湯, 澤瀉湯, 澤瀉牡蠣湯, 導水丸, 三花神祐丸, 審川丸, 布海丸, 五苓散合六一散, 單山樞丸, 茵陳五苓散으로 滲之라 하였고, 陰水는 “身涼大便利, 補中行濕 或升提”라 하여 六君子湯, 蓼苓白朮散, 升陽除濕防風湯, 赤茯苓湯, 玄武湯, 實脾散, 緊皮丸, 千金養脾丸, 中滿分消湯丸, 退黃丸, 復元丹, 加味八味丸, 滋腎丸, 古沈附湯, 朮附湯을 썼다. 또한 兩者는 모두 甘藥으로 助濕作滿하는 것은 피해야하며 또한 針刺도 禁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禁忌를 말하였다. 이후의 周²³⁾와 金²⁴⁾ 등은 그 治法을 따랐다.

李¹³⁾와 張¹⁴⁾은 李¹²⁾의 견해를 따랐으며, 특히 張¹⁴⁾은 治方으로 陽水에는 疎餐飲, 禹功散, 用川散, 神芎丸, 神祐丸, 沈香琥珀丸, 三白散을 등을 應用

하였고, 陰水에는 實脾散加減, 濟生腎氣丸, 五苓散, 復元丹 등을 應用하였다.

吳¹⁵⁾는 陽水는 濕熱로 보아 攻泄하며 大聖瀉川丸, 舟車神祐丸을 用하였고, 陰水는 脾腎虛弱로 보아 溫補하며 實脾散, 金匱腎氣丸을 用하였다.

林¹⁶⁾은 濕熱濁滯는 陽水로 易治이며 處方으로 人橘皮湯, 五苓散合六一散을 말하였고, 脾肺腎虛는 陰水로 難治이며 處方으로 實脾散을 말하였다.

虞¹⁷⁾는 朱^{10,11)}의 증상을 따랐으며, 程¹⁸⁾은 陽水는 熱에 속하고, 陰水는 寒에 속한다고 하였다.

徐¹⁹⁾는 陽水는 그 腫이 上에 있으며 五皮散을 用하고, 陰水는 그 腫이 下에 있으며 腎氣丸을 用하였다.

許²⁰⁾, 康²¹⁾, 龔²²⁾은 李⁹⁾의 症狀을 引用하였고, 그 中 康²¹⁾은 陽水는 多外因으로 八正散, 敗毒散을 쓰고 陰水는 多內因으로 胃苓湯, 復元丹을 썼다.

周²³⁾는 李¹²⁾의 見解를 따르면서 陽水에는 小青龍湯, 越婢湯, 澤瀉散, 十棗湯을 用하며, 陰水는 六君子湯加味, 藿苓湯, 千金餘脾丸, 實脾散, 朮附湯, 腎氣丸, 復元丹을 用한다. 金²⁴⁾은 陽水는 汗下分消, 陰水는 補中行濕 或 升提가 治療要點이라는 李¹²⁾의 治법을 따랐다.

趙²⁵⁾는 李¹²⁾의 증상을 引用하면서 그 침법으로 陽水에 表證으로 惡寒, 發熱, 喘咳하는데 膀胱瀉針이요, 裏證으로 腹脹, 脇硬, 大小便不通에는 胃瀉針을 用하고, 陰水에 中氣不足에는 脾補針으로 補中健脾祛濕하고, 食積을 兼하면 脾瀉針을, 中寒에는 脾補針을, 腎虛에는 腎補針을 用한다고 하였다.

丁²⁶⁾과 金²⁷⁾은 李¹²⁾의 증상을 인용하였으며, 특히 金²⁷⁾은 陽水는 發汗에 越婢加朮湯, 利尿에 五皮散, 逐水에 八正散, 控涎丹을 쓰고, 陰水는 溫運脾腎하니 脾陽虛에는 實脾散, 胃苓湯을 쓰고, 腎陽虛에는 眞武湯, 腎氣丸을 쓴다고 하였다.

《常見病中醫臨床手冊》²⁸⁾에서는 病因에 따라 外感風寒濕熱所致는 陽水요, 體弱久病하거나 陽水가 오래되어 反復不愈하는 것은 陰水라 하였다. 또한 陽水는 實證에 屬하여 治療는 마땅히 發汗利尿하고, 陰水는 虛中挾實로 보아 溫陽益氣行水한다고 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陽水는 迅速히 發生하여 水腫이 頭面에서 開始하여 四肢胸滿하니,

治法은 消風散表, 滲濕利水하고, 陰水는 病勢가 緩慢하며 或은 水腫이 오래되어 反復不愈하고 水腫이 下肢에서 開始하여 胸腹上肢頭面에 이르는 것이니 治法은 健脾溫腎, 通陽行水한다.

《中醫症狀鑑別診斷學》²⁶⁾에서는 一般的으로 發病이 比較的 急하며 腫勢가 上部에 偏重된 것은 熱證, 實證에 屬하며 陽水라 하고, 發病이 比較的 緩慢하고 病程이 길며 腫勢가 下部에 偏重된 것은 寒證, 虛證에 屬하며 陰水라 稱한다고 하였다.

以上을 綜合하여 보면 元代의 朱^{10,11)}가 陽水, 陰水로 나눈 以後, 李¹²⁾는 그러한 見解를 보다 더욱 體系的으로 區分하여 그 病因에 있어서 陽水는 外因으로 보아 涉水, 冒雨風寒暑한 것이며, 陰水는 內因으로 보아 飲水過多, 茶酒過多, 飢飽, 勞役, 房慾한 것이라 하고, 發病上의 差異는 陽水는 先腫上體하니 手三陽經이라 하고, 陰水는 先腫下體하니 足三陽經이라 하였다. 또한 그 症狀에 대하여 陽水는 熱渴而便閉, 汗下分消, 要得宜하며, 陰水는 身涼大便利, 補中行濕 或 升提하며, 治方으로 小青龍湯, 導水丸, 三花神祐丸, 五苓散合六一散, 單山樞丸, 茵陳五苓散 등을 用하였고, 陰水는 六君子湯, 藜苓白朮散, 升陽除濕防風湯, 赤茯苓湯, 實脾散, 中滿分消湯丸, 復元丹, 朮附湯 등을 用하였다. 또한 兩者는 모두 甘藥으로 助濕作滿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또한 針刺도 禁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禁忌를 말하였다. 以後의 많은 醫家들^{12~15,17,20~22,25,26)}이 李¹²⁾가 말한 症狀를 따랐으며, 周²³⁾와 金²⁴⁾등은 李¹²⁾의 治法을 따랐다.

近來 中醫에서는 病因에 따라 外感風寒濕熱所致는 陽水요, 體弱久病하거나 陽水가 오래되어 反復不愈하는 것은 陰水라 하였다. 그 症狀으로 陽水는 迅速히 發生하여 水腫이 頭面에서 開始하여 四肢胸滿하며, 陰水는 病勢가 緩慢하며 或은 水腫이 오래되어 反復不愈하고 水腫이 下肢에서 開始하여 胸腹上肢頭面에 이르는 것이며, 治法으로 陽水는 實證에 屬하여 治療는 마땅히 發汗利尿, 消風散表, 滲濕利水하고, 陰水는 虛中挾實로 보아 溫陽益氣行水, 健脾溫腎, 通陽行水한다.

IV. 結 論

以上으로 陽水 및 陰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病因, 症狀, 治法 및 治方に 대해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陽水는 外感의 風寒暑濕에 損傷된 것으로 外因에 依한 것이며, 陰水는 喫茶, 飲酒, 飲水過多와 飲食의 不節制로 因한 飢飽 또는 勞役, 房勞過多 등의 內因에 依한 것이다.

2. 陽水는 肺氣不宣으로 三焦가 壅滯되어 通調水導하지 못한 것이며, 陰水는 脾胃가 虛乏하므로 行水를 할 수 없어서 發하며 脾陽不振, 腎陽虛衰로 水濕이 運化되지 않는 것이다.

3. 陽水는 先腫上體肩背手臂하며 煩熱, 口渴, 皮膚黃赤, 大小便閉塞, 脈象浮數하니 대개는 實證에 屬하며, 陰水는 先腫下體하여 腰腹脚脛浮腫하며 身體涼冷, 大便順利, 不煩渴, 小便不赤澀하니 대개는 虛證에 屬한다.

4. 陽水는 消風散表, 清熱, 滲濕, 利水하고, 陰水는 溫陽益氣行水, 健脾溫腎, 通陽行水한다.

5. 陽水는 小青龍湯, 導水丸, 三花神祐丸, 五苓散合六一散, 單山樞丸, 茵陳五苓散 등을 用하며, 陰水는 六君子湯, 參苓白朮散, 升陽除濕防風湯, 赤茯苓湯, 實脾散, 中滿分消湯丸, 復元丹, 朮附湯 등을 用한다.

參考文獻

1. 和吉利 : 內科診斷學, 서울, 第一醫學社, pp.253~257, 1992.
2. 杜鎬京 : 東醫腎系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p.441~442, 1993.
3. 董黎明 : 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458~466, 1986.
4. 杜鎬京 : 東醫腎系學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pp.199~212, 1994.
5. 醫學教育研究院 : 家庭醫學, 서울, 서울대학교 出版부, pp.199~224, 1998.
6. Kurt J. Isselbacher : Harrison's 내과학, 서울, 도서출판 정담, pp.200~205, 1997.
7. 林金七 : 東洋醫學叢書, 서울, 國際韓醫學學生會, p.227, 1990.
8. 王埶 의 :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成輔社, pp.163~164, 269~270, 337~340, 1983.
9.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p.183, 1985.
10. 朱震亨 :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pp.302~304, 1982.
11. 朱震亨 : 丹溪治法心要, 山東, 山東科學技術出版社, p.69, 1985.
12. 李梴 : 懸吐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p.458, 1983.
13. 李用粹 : 證治彙補, 台北, 族風出版社, p.182, 1985.
14. 張璐 : 張氏醫通,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123, 1990.
15. 吳謙 : 醫宗金鑑 下, 서울, 翰林社, pp.75~78, 1976.
16. 林珮琴 : 類證治裁, 台北, 族風出版社, p.210, 1987.
17. 虞搏 :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pp.141~142, 1986.
18. 程國彭 : 醫學心悟, 臺北, p.183, 1978.
19. 徐學山 : 醫學門徑,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p.68, 1968.
20. 許俊 : 國譯增補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p.761, 1988.
21. 康命吉 : 濟衆新編, 서울, 杏林書院, p.185, 1982.
22. 龔廷賢 : 國譯萬病回春 上, 서울, 癸丑文化社, p.346, 1977.
23. 周命新 : 醫門寶鑑, 서울, 一中社, pp.151~153, 1980.
24. 金永勳 : 晴崗醫鑑, 서울, 成輔社, p.256, 1990.
25. 趙世衡 : 舍岩針法體系的研究, 서울, 成輔社, pp.255~256, 1986.

26. 丁民聲：東醫學叢書 方藥原理 上, 서울, 京城文化社, p.351, 1982.

27. 金定濟, 金賢濟：東醫臨床要覽, 서울, 書苑堂, pp.90~91, 1977.

28. 江蘇新醫學院：常見病中醫臨床手冊, 北京, 衛生出版社, pp.122~124, 1979.

29. 中醫研究院：中醫症狀鑑別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41~42, 1987.